

北韓政治 体系의 特殊性

金 恒 元*

目 次

- I. 머 리 말
- II. 두 개의 分析 모델
 - 1. 全体主義 모델
 - 2. 政治文化的 모델
- III. 北韓政治体系의 特殊性
 - 1. 全体主義 모델의 관점
 - 2. 政治文化的 모델의 관점
- IV. 맺 는 말

I. 머 리 말

北韓體制의 基本性格에 대한 定義問題를 ① 共產主義體制, ② 全體主義體制 ③ 民族主義體制, ④ 唯一無二한 特殊體制란 네 가지 가능성과 관련시켜 고찰하고 있다.”

北韓은 정상적인 共產主義體制라고만 성격지워 버릴 수 없으며, 스탈린 시대의 全體主義的 動員體系의 성격과 부합되는 면도 많고 神政的 體制 또는 사

* 師範大學 社會教育科 助教授

1) 李洪九, “北韓研究의 學問的課題,” 「北韓의 오늘과 내일」 (서울: 法文社, 1982), P. 11.

머니즘적인 統治體制 비슷한 면도 있다. 따라서 北韓體制를 기존의 體制分類나 模型으로는 적절히 취급할 수 없는 唯一無二한 特殊體制라고 볼 수도 있다.

北韓의 政治體系를 分析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 接近法을 가지고서는 전체의 일면 밖에 볼 수가 없다. 北韓體制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接近法이 있으나 本稿에서는 두 가지 모델(全體主義 모델, 政治文化的 모델)을 가지고 北韓의 政治體系를 分析하려고 한다.

金日成의 唯一體制는 스탈린의 모델을 그대로 따랐다. 이 점에서 우리는 北韓政治體系의 特徵을 全體主義 모델에 의하여 설명 또는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共產主義 政治를 연구함에 있어서 과거의 역사적 및 문화적 영향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政治的 權威에 대한 태도와 가치의 유형이 모든 社會의 보다 광범한 틀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政治文化的 연구는 北韓政治體系의 定向分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²⁾

따라서 本稿의 目的은 全體主義 모델과 政治文化的 모델의 관점에서 北韓政治體系의 特殊性을 分析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複合的인 北韓政治體系를 全體主義 모델과 政治文化的 모델 만을 가지고 分析하는 데는 限界點이 있음을 밝혀둔다.

II. 두 개의 分析 모델

1. 全體主義 모델

全體主義 概念은 주로 스탈린 治下의 蘇聯政治體系가 보여 준 독특한 政治現象 특히 全人民을 共產主義 建設이라는 이데올로기적인 目標로 動員하는 강제적인 權力의 本質과 獨點性을 分析하는 것이 주가 되었다. 蘇聯政治體제의 그와 같은 全體主義的 特性을 가장 대표적으로 定義한 것은 「프리드리히」(Carl J. Friedrich)와 「브르제진스키」(Zbigniew Brzezinski)의 公式이다. 그들에 의하면 全體主義體系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特徵을 지니고

2) 李容弼, 「北韓政治」(서울: 大旺社, 1982), P. 29.

北韓政治 體系의 特殊性

있다고 한다.³⁾

첫째, 그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수동적으로는 신봉하리라 기대되는, 인간 존재의 모든 중요한 면을 포함하는 教條體系로 구성된 公式的 이데올로기. 이 이데올로기는 인류의 완전한 최종적인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투영한다. 즉 그것은 기존 사회의 급격한 거부와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것에 기반을 둔 天年王國을 포함한다.

둘째, 單一人, 獨裁者 및 全人口中の 少數로 구성된 單一大衆政黨, 그들 가운데 핵심은 열성적으로 의심없이 이데올로기에 헌신하고 그것의 일반적인 受容을 추진하는 데 모든 면에서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경우 黨은 階位的으로, 寡頭的으로 조직되어 있고, 그리고 전형적으로 관료적인 정부 조직보다 우월하거나 완전히 융합되어 있다.

셋째, 공포적인 警察의 統制體系, 지도자를 위해 黨을 지지하지만 역시 감독하며, 體制에 대하여 분명한 적은 물론 주민들 중에서 자의적으로 선택된 계급을 감독한다. 비밀경찰의 테러는 현대과학 특히 과학적 심리학을 조직적으로 이용한다.

네째, 新聞, 방송, 영화 등의 효과적인 모든 매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黨의 完全獨占.

다섯째, 軍에 대한 거의 완전한 獨占的 統制.

여섯째, 全體經濟의 中央集權的 統制와 指導 등이다.

이 모델은 共產主義體制下에서의 기본적인 變化를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한다. 위에 제시한 諸特徵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體主義의 본질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어떤 體制도 무조건적인 軍事的 敗北에 의하지 않고는 기본적으로 變化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그 자신의 다이내미즘(dynamism)에 의해서 추진된다고 생각되었다. 사회의 전체적인 統制는 기본적인 變化에 영향을 줄 수 있을런지 모르는 反對勢力을 위한 여지를 남겨 줄 수 없다.

스탈린 死亡 이후 蘇聯政治體系의 내부적 變化가 촉진됨에 따라 靜態的인 全體主義 概念은 그러한 變化를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難占이 들어

3)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Harry Eckstein and David E. Apter (eds.), Comparative Politics (New York: The Free Press, 1965), P. 467.

나게 되고 共産國內 民族主義的 發展의 강조는 分派的 共産주의의 樣相을 露 骨하여 스탈린 시대와 같은 一元的인 共産주의의 개념은 그 타당성을 크게 상 실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全體主義라는 용어는 共産主義 現實을 이해하는 데 부적절한 것으로 거부한다. 몬티아스 (John Michael Montias)는, 전체 주의 모델은 共産主義와 西歐社會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는 데 기여할런지 모 르지만, 그것은 共産主義體制 사이의 비교를 위해서는 거의 적절하지 못하다 고 지적했다.⁴⁾

全體主義 모델의 弱占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스탈린 시대 蘇聯政 治體系의 특징을 分析基準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탈린」 이후의 變化 와 같은 蘇聯政治體系의 動態的인 過程을 설명해주지 못하는 말하자면 「歷史 的으로 制約된 모델」⁵⁾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共産主義體制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全體主義 모델이 전혀 無價値하 다는 것은 아니다. 「잉켈리스」는 다음과 같이 全體主義 모델의 價値를 인 정하고 있다.

「全體主義理論 모델은 여전히 높은 타당성을 갖고 있다. 즉 그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우리는 蘇聯이 그러한 모델로부터 얼마나 이탈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⁶⁾

브르제진스키도 이 모델의 特徵이 오늘의 소련을 충분히 평가할 수 없으며 또한 그러한 特徵의 다수가 共産主義指導者에 있어서 逆機能的임을 시인하면 서도 強制的 또는 集中的 社會變換의 과정에서 사회에 대한 全統制力의 관계 를 확립하려는 政治體系를 연구함에 있어서 분석적 범주로서의 效用을 주장 하고 있다. 全體主義의 概念 없이 소비에트 체계의 特異한 점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全體主義 接近法에 대한 批判論者들과 같이 이러한 모델이 내 포하고 있는 결함을 우리는 인정하지만 共産主義體制의 發展過程의 어떤 단계

4) Dankwart A. Rustow, "Communism and Change," in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 351.

5) Alex Inkels, "Models and Issues in the Analysis of Soviet Society." Survey, No. 60 (July 1966), Reprinted in Richard Cornell, (ed.), The Soviet Political System: A Book of Reading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70), P. 16.

6) Ibid., P. 23.

에 있어서 이 接近法에 대한 論議는 아직도 이것이 하나의 發見的 도구로서의 효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2. 政治文化的 모델

얼몬드 (Gabriel Almond) 는 政治體系를 비교하기 위해서 1956년에 政治文化的 概念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1963년에 「The Civic Culture」와 2년 후에 「政治文化和 政治發展」의 출간으로, 얼몬드 (Gabriel Almond) 버바 (Sidney Verba), 파이 (Lucian Pye)는 政治文化的 명백한 이론을 표현하는 데 개척적인 시도를 했다.⁷⁾ 얼몬드는 포웰 (G. Bingham Powell) 과의 공동 노력에서, 政治文化에 대한 그의 개념을 더 세련화시켰으며, 그것을 政治體系와 政治發展에 연결시켰다.⁸⁾

共產主義體制 연구에 있어서 政治文化的 模型이 중요시 되는 배경은 무엇보다도 共產主義體制 자체가 革命的인 動態性을 갖고 있으며 또 그와 같은 體制的 變化가 公式的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說明되고 있다는 본래의 性格에서 연유되는 것 같다.

革命的인 變化的 過程을 겪는 政治體系의 研究에서는 우선 政治權力의 組織形態를 보여 주는 리더십의 성격이나 政治權力과 社會의 關係를 규정해 주는 이데올로기의 機能, 그리고 政治決定의 形態를 특징지워주는 政治過程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關係에 있다는 점에 유의하게 된다. 이와 같이 革命的 리더십의 性格이나 이데올로기의 進化機能 또는 政治過程에 초점을 맞추어 共產主義體制的 變化에 접근하려는 입장은 어차피 政治文化論的 分析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¹⁰⁾

한편 共產主義體制 研究에 있어서 政治文化論的 分析이 중요시 된 또 하나의 背景은 共產主義體制間의 多樣性에 대한 認識과 밀접한 關係를 갖고 있다.

7) 李容弼, op. cit., PP. 25-26.

8) Lowell Dittmer, "Comparative Communist Political Culture,"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XVI, Number 1&2, Spring/Summer, 1983, P. 10.

9) Ronald H. Chilcote, Theories of Comparative Politics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81), P. 224.

10) 李啓熙, "蘇聯體制的 變化와 研究方法의 模索," 「蘇聯政治의 理解」(경남대학 출판국, 1977), P. 51.

政治文化論의 分析은 정치체계의 公式的이고 構造的인 측면과 아울러 非公式的인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政權의 課題와 이데올로기적인 標榜 (ideological tenets) 또는 課題를 再定義해가는 政權의 對應과 같은 政治文化를 결정해주는 諸變數의 多樣性을 제시해 줄 수 있는 長占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政治文化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分析的 연구의 可能性을 제시하고 있다. ① 마르크스·레닌주의 體制들은 變換과 團結로 부터 近代化에 이르는 그들의 수행해야 할 課業의 우선 순위를 再定義하고, ② 支配黨들의 體制 및 共同社會는 成員集團과 일체성의 準據로서의 凝集力과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③ 이러한 黨들의 社會成分도 변화되며, ④ 非마르크스·레닌主義的 世界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변화된다.¹¹⁾

소비에트 體制의 特徵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制度, 즉 集中化된 經濟, 自治的인 集團活動의 결여, 시민들의 활동은 물론 信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政府, 社會의 義務에 대한 集團的인 規制의 기원은 러시아의 역사 속에 놓여 있다. 그리고 현재 그것들의 大衆性은 煽動과 宣傳에 의해서라기 보다 傳統的인 政治文化의 계속적인 영향에 의해서 더 잘 설명된다.

蘇聯體制가 마르크스·레닌주의 價値에 대해서 支持를 얻었던 成功의 정도는 소련 시민들의 政治的 信念과 기존의 傳統的인 政治文化 속에 있는 中心的 要素들 사이에 一致의 정도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그 一致는 蘇聯體制의 政治教育計劃의 產物이라기 보다는 歷史的 環境의 產物이다. 蘇聯市民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자의 이데올로기 訓練의 산물이기 보다는 압도적으로 分명한 歷史的 經驗의 產物로 남아 있다.¹²⁾

蘇聯의 지배적인 政治文化는 革命以前의 시대로 부터 이어 받은 政府에 대한 定向의 類型에 의해서 주로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 體制가 1917년 이래 추진했던 公式的인 政治文化는 단지 제한된 정도로 受容되었다. 그러나 傳統的인 政治文化는 성격상 강한 集團主義的이고 福祉國家主義的이었다. 그것은

11) 李容弼, op. cit., PP.27-28, 재인용

12) Archie Brown and Jack Gray,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Change in Communist States (New York: Holmes Meier Publishers Inc., 1979), P. 49.

北韓政治 体系의 特殊性

많은 制度와 慣習에 대한 以前의 支持가 소비에트 政府形態와 關係를 가질 수 있을 만큼 體制는 安定되고 正統性이 있는 것이다. 즉 政治文化와 政治體系 사이에 一致性이 있는 것이다.

革命以前 시대에 있어서 政府에 대한 定向들은 고도로 傳統的인, 즉 共同 社會的인, 類型의 社會에 基반을 두고 있었다. 그 안에는 集團所有와 耕作에 있어서, 인구의 대부분이 고용되었던 土地에 대한 統制에 基반을 둔 상당한 정도의 社會의 自動調整이 있었다. 蘇聯體制의 集團主義的이고 福祉國家的인 많은 制度들은 政府에 대한 대중적인 期待들에 확고히 뿌리박혀 있는 것 같이 보이며 그리고 變化에 상당히 저항하는 것 같다. 그들은 두 가지 要因, 즉 그 체제가 달성하려는 느리지만 지속적인 生活水準의 향상, 그리고 단지 소비에트 통치로서 알려져 있는 것들이 社會내에서의 相對的인 比率이 점차적인 증가 등에 의해서 支持되고 있다.¹³⁾

東歐에서도 傳統的인 政治文化는 持續되고 있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過去를 現在의 마르크스주의자의 觀點에 의해서 고쳐쓰거나 낡은 歷史的인 象徵을 새로운 것으로 대치시키려는 경향은 國民들 가운데는 거의 없거나 없다. 폴란드와 체코의 경우에는 명백하며, 헝가리에서도 1956년에 共產主義 象徵에 대한 거부와 과거의 民族主義的인 象徵의 회복은 명백한 것 같이 보인다. 西歐 自由民主主義의 價値에 대한 愛着의 強度는 歷史나 國民들의 經驗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넘는 것 같다. 만일 그들의 政治文化가 共產主義 經驗에 의하여 變化되어 왔다면, 그것은 全體主義的인 共產主義 모델로 부터 反對方向으로 變化해왔다. 유고에서는, 스탈린주의적인 獨裁政治의 經驗이 매우 짧다. 유고가 共產主義下에서 經驗한 것은 훨씬 더 많은 多樣성과 融通性이 주어지는 社會政治的 組織의 형태이다. 거기에서는 反體制에 대한 強壓은 산발적이고 덜 엄격하였다. 국민들의 상당한 부분이 그들의 政府와 自由 및 平等의 價値를 同一視할 준비를 보여 주었다. 유고 국민들의 價値, 期待 및 政府의 慣例 사이에 다른 東歐社會에서 보다도 훨씬 더 적은 不一致를 보여 준다.¹⁴⁾

소련에서, 스탈린 死後 이래 變化의 相對的인 결여는 러시아의 傳統과 慣

13) Ibid., PP. 56 - 57.

14) Ibid., PP. 265 - 266.

예의 일치를 나타낸다. 지금까지의 政治的 變化는 權威主義의 정상적인 짜리 스트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스탈린주의의 지나침의 포기로 記述될런지 모른다.

그리고 蘇聯과 中共政治 性格의 중요한 차이에 대한 공통적인 설명은 歷史的, 國家的 特性和 傳統的 政治文化에 의해서 보통 공식화된다.¹⁵⁾

가장 넓은 관점에서 보면, 지금 까지 共產主義 國家에서 政治的 變化의 結果는 우리가 그들의 以前의 政治的 經驗과 政治文化에 대해서 아는 것과 일치해왔다는 것임에 틀림없다.¹⁶⁾

Ⅲ. 北韓政治体系의 特殊性

1. 全體主義 모델의 관점

앞에서 언급한 全體主義에 特徵 가운데서 權威主義體系의 특징과 다른 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완전한 통일체는 아니지만 一元的 (monistic) 인 權力的 중심이 있다. 둘째, 독점적, 자율적, 그리고 다소간 지적으로 세련된 이데올로기가 있다. 셋째, 정치적, 집단적인 社會的인 課業에 시민의 참여와 활동적인 動員은 單一政黨과 많은 독점적인 2 차 집단을 통해서 격려되고 요구되고 보상받으며 연결이 된다.¹⁷⁾

도이취 (Karl W. Deutsch) 는 全體主義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勞力과 資源의 극단적인 動員, 명령의 統一性 (Unity of Command), 그리고 強制할 수 있는 효과적인 능력 (effective power of enforcement) 을 들고 있다.¹⁸⁾ 全體主義는 정부하에 있는 주민들의 勞力과 資源의 극단적인

15) Jonathan R. Adelman, "The Impact of Civil Wars on Communist Political Culture: The Chinese and Russian Cases,"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XVI, op. cit., P. 27.

16) Archie Brown and Jack Gray, op. cit., P. 267.

17) Fred I. Greenstein Nelson W. Polsby, (eds.), Macropolitical Theory,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 3.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5), P. 191.

18) Karl W. Deutsch, "Cracks in the Monolith: Possibilities and Patterns of Disintegration in Totalitarian Systems," Harry Eckstein and David E. Apter (eds.), Comparative Politics (New York: The Free Press, 1965), PP. 497 - 498.

北韓政治 體系의 特殊性

動員을 수반한다. 命令의 單一性은 두가지 의미로 사용되며, 체계의 모든 명령은 單一의 원천에 의하여 통제된다. 그리고 강제할 수 있는 可能性은 全體主義體系內에서 모든 決定을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權力의 존재를 요구하고, 외부로부터의 모든 효과적인 방해를 방지할 충분한 權力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本稿에서는 北韓의 政治體系를 公式的 이데올로기, 全體主義的 政黨, 그리고 動員體系를 중심으로 分析하려고 한다.

1) 公式的 이데올로기

어떤 학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全體主義體系는 이데올로기主義 (ideocracies) 또는 理念主義 (logocracies) 라고 생각된다. 全體主義의 支配者는 개인이나 집단이나간에, 다른 非民主的인 支配者에 비해서, 인간과 사회의 어떤 全體論的 (holistic) 인 개념에 대한 속박으로부터 그들의 사명감, 正統性, 그리고 가끔 매우 특수한 政策을 끌어낸다.¹⁹⁾

全體主義體系에서 이데올로기는 正統性의 원천이고, 지배자나 지배집단의 使命感의 원천이며, 그리고 그러한 요소에 근거해서 支配者나 黨의 카리스마를 말해야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北韓政權의 수립시 統治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레닌주의였다. 1955년 말 金日成은 잠재적으로 政敵을 제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무기, 主體의 確立을 외치면서 소련의 경험을 朝鮮實情을 고려함이 없이 통채로 삼기려는 形式主義·事大主義를 공격하게 되었다. 이것이 北韓政權의 첫번째 이데올로기 쇄신 작업이다. 1972년 北韓統治이데올로기의 體系化 作業은 이미 굳어진 金日成의 唯一支配를 합리화하고 장기간의 權力獨占이 만들어낸 個人權威의 神格化를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 바로 金日成 革命思想의 진수라고 선전하는 主體思想이다. 이로써 北韓社會生活에서 법과 도덕, 그리고 종교는 金日成의 統治이데올로기인 主體思想으로 대체되고 말았다.²⁰⁾

北韓憲法을 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²¹⁾ 고 되어 있다. 勞動黨 규약에도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

19) Fred I. Greestein, Nelson W. Polsby, op. cit., P. 196.

20) 金甲喆, 「北韓共產主義 理論과 實際」 (서울: 文佑社, 1984), PP. 204-205.

21) 북한헌법, 제 12 장, 제 4 조.

대한 수령 金日成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서 지도된다」²²⁾고 되어 있다.

金日成 主體思想은 마르크시즘의 全體主義 要素만을 유지하고 그 외에는 思想의 哲學的 基礎 부터 구체적 行動領域에 이르기까지 새 思想體系의 定立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主體思想은 人間中心世界觀, 勤勞大衆 集團主義, 絕對主義의 세 가지를 中核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이 세 가지 생각을 人民大衆에게 注入하여 意識改造를 통한 人間改造를 성취하여 1人 支配體制를 영속화 시키려는 意識的 努力의 표현이 곧 金日成 主體思想이라는 政治이데올로기라 본다.²³⁾

애펜터(D. Apter)에 의하면 이데올로기는 두 개의 機能, 즉 共同體를 結束시키는 機能과 他人의 役割을 組織化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두 개의 機能은 支配體制의 權威를 정당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데올로기는 엘리트를 支持하고, 또한 權力行使를 정당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²⁴⁾ 이러한 면에서 볼 때 主體思想은 金日成 支配體制의 權威와 權力行使를 정당화시키고 北韓 주민을 결속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主體思想의 機能은 ① 金日成 1人體制의 合理化, ② 全體主義動員의 메카니즘, ③ 對南革命路線의 合理化, ④ 第3世界宣傳의 機能 등이다.²⁵⁾

따라서 이 이데올로기는 金日成 1人의 獨裁體制를 正當化하고 合理化하며 ‘統一’이 될 때 까지 專制를 認耐하라고 北韓住民을 설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2) 全體主義의 政黨

이데올로기의 중요성, 權力의 一元的 중심을 지향하는 경향, 그리고 大衆參與와 動員의 강조로 부터 유래하는 全體主義 政治體系의 유일한 징후는 全體主義 政黨, 그것에 종속된 諸組織과 構成員, 그리고 사회에서 그들이 행하는 기능 속에서 가장 순수한 표현을 발견한다.

22) 조선로동당 규약

23) 李相禹, “政治理念, 社會變化和 對南關係,” 「北韓의 오늘과 내일」 (서울: 法文社, 1982), pp. 298-299.

24) 李容弼, 「共產主義 이데올로기」 (서울: 華學社, 1983), p. 16.

25) 金甲喆, op. cit., pp. 196-203.

北韓政治 体系의 特殊性

全體主義的 政黨과 國家의 關係를 보면, 國家는 黨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道具이며 黨의 결정을 수행하는 도구가 된다. 全體主義的 黨은 소수의 黨원을 가진 大衆政黨이다.

共產黨은 레닌의 前衛黨 概念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레닌의 黨理論을 보면 黨은 少數精銳의 職業革命家로 구성되어야 하고 그 성격상 民主的 中央集權主義를 지도 원리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北韓의 소위 「勞動黨規約」을 보면, 「조선로동당은 우리 나라에서 로동계급과 전체 로동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며 전체 근로대중 조직체 중에서 최고 형태의 혁명 조직이다」²⁶⁾ 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당을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한다」²⁷⁾ 라고 되어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勞動黨의 組織原則은 레닌이 주장한 소위 民主的 中央集權制의 原則이다. 요컨대, 勞動黨의 組織原則은 ① 黨員은 黨組織에 복종하는 「組織優位의 原則」 ② 少數는 多數에 복종하는 「多數支配의 原則」 ③ 下級黨組織은 上級黨組織에 복종하는 「上級黨組織 優位의 原則」 ④ 全體黨組織은 中央委員會에 복종하는 「中央支配의 原則」등이라 할 수 있다.²⁸⁾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인 규정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中央委員會를 지배하는 者가 黨을 지배하게 되며 黨을 지배하는 者의 意思가 곧 黨의 意思로 관철된다. 이것은 오늘날 金日成의 意思가 黨의 意思로 되고 金日成이 黨 위에 君臨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뚜렷이 나타난다. 黨規約에도 이 점을 명시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金日成 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당이다.」 그리고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金日成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서 지도된다.」²⁹⁾

黨과 國家와의 關係를 보면, 北韓은 外形上 三權分立 體制인 最高人民會議(立法機關), 中央人民委員會와 政務院(行政府) 및 中央裁判所(司法府)로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朝鮮勞動黨의 一黨獨裁體制에 지나지 않는다. 憲法上으로는 最高人民會議은 最高主權機關이며, 유일한 立法機關이라 明示

26)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

27) 조선로동당 규약, 제2장, 11조.

28) 趙在璠, “黨과 政治權力,” 「北韓政治論」(서울: 極東問題研究所, 1976), P. 137.

29)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

되어 있으나³⁰⁾ 超憲法的 權力인 黨의 領導가 모든 國家機關의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大衆組織은 黨의 외곽조직임을 黨規約에 명시하고 있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이며 항일 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는 당의 외곽조직이다.」³¹⁾

3) 動員體系

(1) 動員目標

北韓政權은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³²⁾ 라고 明文化하고 있다. 여기서 그들의 動員體系의 目標文化가 共產主義社會(階級없는 社會) 건설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당면 목적이 「北韓에서 社會主義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民族解放과 人民民主主義 革命課業을 수행」이라 한 것은 動員體系의 轉移文化를 밝힌 것이다. 이 轉移文化가 바로 「動員目標」라 하겠다.

共產主義 動員體系에서 「動員目標」 구현을 위한 제반 정책 및 조치는 소련의 역사적 경험에서 그 例證을 찾을 수 있다. 동원체계의 고전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탈린 政權의 體系維持를 위해 추구한 제반 정책들은 ① 共產黨과 그 지도자의 권력 독점, ② 국가 방위를 위한 중공업 건설, ③ 농업의 집단화, ④ 諸生産手段의 국유화, ⑤ 소비자 시장의 除去, ⑥ 기술전문가 양성 등이었다. 이와 같은 소련의 準據를 기준으로 볼 때 北韓共產政權의 「體系維持」를 위한 제반 정책 및 조치들도 유사하다고 하겠다.³³⁾

(2) 動員組織

北韓共產政權의 동원 양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動員組織體系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해 보면, 동원을 위한 조직체계는 당계통의 체계와 행정계통의 체계로 대별할 수 있다.

30) 북한헌법, 제 73 조.

31) 조선로동당 규약, 제 56 조.

32)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

33) 李容弼, 「北韓政治」, op. cit., PP. 198-199.

가. 黨體系

黨體系는 黨의 基層組織(당세포와 초급당위원회)과 군사적 勞動赤衛隊 및 대중 외곽단체를 통해서 대중을 직접 통제 및 동원하고 있다.³⁴⁾

黨細胞는 「당의 최하 기층조직은 당세포이다. 당세포는 당원 생활의 거점이며 당 주위에 대중을 집결시키고 대중속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당의 전투 단위이다.³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세포의 조직은 행정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사회단체, 교육·문화·보건기관, 인민군대 및 모든 단체 속에 조직되는 데,³⁶⁾ 당원 5명에서 30명까지의 단위에서 조직한다.³⁷⁾

당의 基層組織의 임무는 당규약 제 6 장 45 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³⁸⁾

主體思想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도록 당원들과 근로대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켜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도록 하며, 당학습을 통하여 당원들을 혁명가로 육성한다. 당원과 근로대중을 공산주의 교육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통해 혁명화, 노동계급화 한다. 그리고 당 사업에 청산리 정신과 방법을 적용하고 정치사업을 실행시켜 당원과 근로대중들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며, 노동적위대를 강화하고 유사시 동원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이와 같이 北韓共產政權은 당을 통해서 「主體思想」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당원을 조직하고 혁명가로 지도 육성하여 이 당원 또는 당세포들로 하여금 대중들을 직접 통제 동원하게 된다.

北韓의 民兵組織으로 勞農赤衛隊, 붉은青年近衛隊, 人民警備隊, 學徒軍事訓練, 民間反航空機構 등이 있는 데,³⁹⁾ 이들을 통해서 대중을 통제 동원한다. 다른 한편으로 당의 외곽단체인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 朝鮮職業總同盟, 朝鮮民主女性同盟(女盟), 農業勤勞者同盟(農勤盟), 朝鮮文學藝術同盟(文藝總),

34) Ibid., P. 200.

35) 조선로동당 규약, 제 6 장, 41 조.

36) 李容弼, op. cit., P. 200.

37) 조선로동당 규약, 제 6 장, 41 조.

38) 北韓研究所, 「北韓總覽」, 1983, PP. 210-211. 참조.

39) 極東問題研究所, op. cit., PP. 286-291.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등을 통하여 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하기도 한다.

당에 의한 감시체계로는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가 있고 道(직할시)와 市(구역)·郡당위원회에 까지 검열위원회를 두어 당원은 물론 주민을 감시 통제하고 있다.

나. 行政體系

행정계통의 동원조직 체계는 中央人民委員會系統을 통하여 주민들을 직접 통제하고 동원하는 것 외에 公安機關으로 社會安全部(社會安全員)와 國家政治保衛部 등의 기관을 통하여 주민들에 대한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中央人民委員會는 地方人民委員會와 行政委員會, 里(洞) 사무소의 행정체계를 통하여 재반 정책 및 업무를 지시하고 이의 실천, 이행사항을 통제 감독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하는 기능들을 수행한다.⁴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北韓의 動員組織構造는 黨·行政體系 및 외곽단체를 통해서 행하여 지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주민들을 감시하기 위한 체계는 당의 檢閱委員會, 행정계통의 社會安全部和 國家政治保衛部를 두고 있다.

(3) 動員手段과 動員運動의 形態

動員手段으로서는 強制的 手段, 規範的 手段과 功利的 手段을 사용하고 있으며, 強制的 수단으로는 監視體系, 생활의 統制, 51個 階層區分, 숙청 등이고, 規範的 수단으로는 政治教養教育, 群衆路線이며, 功利的 수단으로는 獨立採算制, 分組管理制, 賞勳制度 등이 사용되고 있는 데, 이러한 수단들은 복합적인 구조로 활용되고 있다.⁴¹⁾

北韓은 私有的財產의 社會的 所有로 전환됨에 따라 노동의욕이 감퇴됨으로써 급격히 저하되자, 群衆路線에 의해 生産性 提高를 위한 大衆動員運動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동원운동의 형태에는 「千里馬運動」, 「3大革命小組運動」, 「速度戰」(속도운동), 「3大革命 붉은旗 爭取運動」 등이 있다.⁴²⁾

北韓政權은 대중들의 모든 生活領域에 빈틈없이 침투하여 體制的 發展目標의 成就를 위하여 이들을 動員한다. 이러한 政治的 意志의 下向的 投射 내지

40) 李容弼, op. cit., PP. 201-202.

41) Ibid., PP. 205-218. 참조.

42) Ibid., P. 218.

北韓政治 体系의 特殊性

大衆動員의 媒介의 構造變數가 다름아닌 이른바 大衆의 외곽단체이다. 또한 大衆動員과 矯政的 還流기능의 수행을 위한 戰略으로서 群衆路線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⁴³⁾

요컨대 北韓共產政權의 동원체계 구조와 동원양태의 특징이 他共產主義國家의 그것과 구별되는 것은, 그 體系가 추구하고 있는 目標가 社會, 經濟的 構造의 변화 뿐만 아니라 人間性的 개조 까지도 강요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動員體系의 基本的 目標라 할 수 있는 經濟發展 보다는 오히려 金日成 唯一體系 및 世襲體系確立과 赤化統一이라는 似而非 大衆目標를 추구하고 있는 「全體主義的 軍事動員體系」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⁴⁴⁾

2. 政治文化的 모델의 관점

모든 共產主義政治體系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그 하나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教條에 의거한 공산당 엘리트 政治文化고, 다른 하나는 카리스마적 리더쉽에 의거한 權威主義的 文化라고 하겠다.⁴⁵⁾

현재의 北韓은 共產體制가 共有하는 一般的 屬性和 傳統文化的 傳來的 要因의 混合物이다. 따라서 北韓의 政治文化에 대해서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지만, 朝鮮王朝의 유교문화, 日帝 시대의 식민지 정책, 金日成의 全體主義的 動員體系로 미루어 보아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15세기 말 韓半島에 朝鮮朝라는 새로운 王朝를 건립한 新興 엘리트들이 대부분 유자들이었다는 社會身分의 이유와 또 새로 형성된 政治權力에 正統性의 명분을 제공한 것이 바로 유교적 價値秩序였다는 점에서 유교는 이미 朝鮮朝의 강력한 統治이데올로기 형태로서 政治文化의 一義的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⁴⁶⁾

유교는 원래 현실적 기반에서 출발하였던 만큼 이러한 유교의 현실성은 그

43) 金雲泰 外, 「韓國政治論」(서울: 博英社, 1977), P. 707.

44) 李容弼, op. cit., P. 230.

45) Ibid., P. 30.

46) 崔昌圭, “韓國의 政治文化 - 그 歷史的 側面,” 「世代」 國刊 9권 9호 (통권 98호), 1971. P., PP. 79-80.

敎義를 社會論理 및 政治思想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유교는 그 중심개념을 仁이란 倫理哲學에 두고 있으며 그 궁극적 목표를 順從體系에 따른 질서에 의하여 조화된 안정된 사회에 두고 있다.⁴⁷⁾

유교의 文化價値는 朝鮮王朝의 統治體系가 의존하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新興王朝秩序에서 유교만이 유일한 文化價値로서 排他的 獨占性을 享受하였을 뿐더러 여하한 질서와 가치도 유교적 敎理에 의하여 합리화되지 않는 한 실효가 없었다. 따라서 유교는 政治權力이 의존하고 社會的 規範이 추구하여야 할 포괄적인 文化的 準據의 틀로서 발전하게 되었다.⁴⁸⁾

朝鮮 시대의 학자들은 소위 形而上學이나 종교 같은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윤리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치중하였고, 특유의 철학 사상을 창조하는 것도 아니었고, 모든 것에 中庸을 찾는 것이 유교의 중심사상이었다. 가족과 국가 속에 權威를 인정하고, 민중은 君王에게, 어린이는 부모 명령에, 아내는 남편에게, 연소자는 연장자에게 복종하는 것만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유교는 개인의 自由 보다 權威를 먼저 앞세운 사상이라 하겠다. 유교의 도덕은 統治者를 위한 倫理요, 피지배자가 지배자에게 굴복하는 것을 요구하는 정치도덕이요, 권력자·통치자·상위자가 그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옹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정치윤리라 할 수 있다.⁴⁹⁾

유교는 價値定向中에서 權威主義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五倫에 나타난 人間關係만 하더라도 5가지중 4가지가 모두 上下의 人間關係이다. 즉 父子, 君臣, 長幼, 夫婦의 관계는 모두가 上下의 관계이며 대등한 관계는 朋友의 一項만이 例示되고 있음을 본다. 바꾸어 말하면 傳統的인 유교의 價値觀에서 人間關係를 바라다 보는 準據들은 人間 對 人間의 平等한 관계가 아니라 上下關係, 이른바 垂直關係이다.⁵⁰⁾

한편 朝鮮朝의 治者層은 일반 民衆들에게 유교의 政治理念과 道德을 敎育 또는 敎化를 시키는 것이 그들을 위하여 유리하다고 인식되었을 것이고 그

47) 玄相允, 「朝鮮儒學社」(서울: 民衆書館, 1949), pp. 4-5.

48) 金雲泰, 「朝鮮王朝行政史(近世篇)」(서울: 博英社, 1970), pp. 49-50.

49) 尹泰林, 「韓國人」(서울: 玄岩社, 1970), pp. 126-128.

50) 李球載, “韓國政治文化小考,” 서울 敎育大學論文集, 第4輯, 1971.4., p. 52.

北韓政治 体系의 特殊性

들에게 유리한 體制의 유지를 위하여 상당한 정력과 자원을 투입하였던 것 같다.

이상과 같이 朝鮮 시대에는 權威主義가 韓國人의 思想과 行動을 지배하였다. 그 결과 傳統社會는 君主를 頂點으로 하는 건고한 엘리트 階級支配體制이며 엄격한 階級秩序를 이루었고 家父長的 權威主義의 政治文化가 지배하였다.

日帝 시대의 植民地政策은 權威主義的 政治文化를 더욱 강화시켜주었으며, 解放 후 北韓에는 소련군의 점령과 뒤이은 金日成의 全體主義的인 지배로 民主主義를 접할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北韓住民들은 朝鮮 시대 이래 계속해서 東洋型的 專制主義體制下에서 생활을 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北韓의 政治的인 風土 역시 支配를 당연시하는 경향을 떨 수 밖에 없었다.

北韓政治의 基本的인 定式은 北韓의 政治文化를 典型的인 臣民文化로 전락시키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韓國傳統文化의 權威主義的 屬性에 의해서 심화된다.⁵¹⁾ 그리고 北韓의 政治文化는 다른 共產主義 政治體系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共產黨의 엘리트 정치문화에 의해서 특징지워질 수 있다. 따라서 北韓의 정치문화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의거된 것이라고 하겠다. 北韓은 다른 共產主義政治體系에서와 같이 絕對權力이 一人에 대한 이상화를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다. 金日成의 경우에 있어서의 이상화는 지배자 개인의 인격을 神에 가까운, 또는 超人的 特徵을 소유한 존재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金日成의 似而非 카리스마적 權威와 리더쉽은 그의 자의적 권력 지배를 정당화한다. 모든 중요한 判斷과 決定은 金日成에 의해 내려지고 그것은 또한 持續的인 共產主義革命이라는 특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神聖視되고 있다.⁵²⁾

IV. 맺 는 말

本稿의 目的은 全體主義 모델과 政治文化的 모델의 觀點에서 北韓政治體系

51) 金雲泰 外, op. cit., P. 707.

52) 李容弼, op. cit., PP. 31-33

의 特殊性을 分析하려는 것이었다.

먼저 두 개의 分析 모델의 特徵과 弱點을 검토하였고, 다음에 北韓 政治體系의 特殊性을 分析하였다.

全體主義 모델의 觀點에서는 全體主義의 顯著한 徵候인 公式的 이데올로기 全體主義的 政黨 및 動員體系를 중심으로 分析하였다. 公式的 이데올로기로서 金日成 主體思想은 金日成 一人獨裁體制를 正當化하고 합리화하며 一人支配 體制를 영속화 시키고 北韓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全體主義的 政黨으로서 勞動黨은 金日成 一人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으며, 黨은 국가의 모든 기관을 지배하고, 모든 大衆組織은 黨의 외곽조직이다. 그리고 動員體系는 주민들의 모든 生活領域에 빈틈없이 침투하고 있으며 動員手段을 복합적인 구조로 활용되고 있고 人間性의 改造 까지도 강요되고 있다. 動員目標은 經濟發展 목표 보다 오히려 金日成 唯一體系 및 世襲體系 확립과 赤化統一의 目標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다.

北韓의 政治文化는 朝鮮朝와 日帝 시대의 權威主義的 文化를 그대로 이어 받았고 金日成의 철저한 全體主義的 動員體系로 말미암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반을 둔 전형적인 臣民文化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北韓政治體系의 特殊性은 소위 金日成이 창시했다는 主體思想과 金日成 一人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勞動黨이 지배하는 「全體主義的인 軍事動員體系」이며, 金日成의 偶像化와 神格化가 정당화되는 風土가 이루어 질 수 있는 唯一無二한 神政的體制라 하겠다.